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김헌수 (독립개신교회신학교 교수)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라는 문구는 사도신경에서 유일하게 현재형으로 표현된 부분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도신경에서 가장 경시되거나 무시된 부분이기도 하다.¹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사실이 경시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사도신경의 번역에도 나타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번역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인데 ‘성부’가 생략되었다. 둘째는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고 번역하면 지금 하늘에서 행하시는 일은 별로 없고 장차 재림하실 날만을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읽힌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 가장 영광스러운 통치를 시행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면, 신자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타내면서 살아간다는 사실 또한 자연히 약화될 것이다.

1.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심 (50문)

50문: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답: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1)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오른편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구절은 사도신경의 첫 조항에도나왔는데, 여기 이 중간 부분에서도 다시 나온다. 짧은 신조에서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된다는 것은 이 구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의 첫 조항을 다룰 때에 설명한 것처럼, 사도신경에서 “전능하다는 것은 공허한 개념이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채워진 개념이다.”²

2. 로호만, 『사도신경해설』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57쪽;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월드뷰』 (2016년 10월호), 39를 참조하십시오.

1. F. Klooster, Our Only Comfort I, p. 633.

‘하나님의 오른편’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오른편이나 왼편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오른편’이라는 말은 신인동형적 표현법(神人同形, anthropomorphism)이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권능과 권위의 자리를 표시한다. 그러한 예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출 15:6. 참조. 출 15:12; 시 17:7; 20:6; 21:8; 98:1 등)라는 찬양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영광스러운 왕위에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말이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한다고 가르친다(벧전 3:22).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신다’는 말이다.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듯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22:1)에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과 어린양이 ‘하나의 보좌’에서 통치하신다는 것이 공간 개념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지만, 공간을 초월하신 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보좌’로 표현되는 방식으로 영광 중에서 통치하신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것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시 110:1) 하는 예언의 성취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일은 자동적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의도적으로 시편 110:1을 인용하셨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재판을 하던 그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고 요구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

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예수님께서 참람한 말을 하였다고 하면서 사형의 판결을 내렸다(마 26:63-66). 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사형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사실을 이야기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2) 성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행하시는 일

구약의 성전에는 ‘의자’가 없다. 염소나 황소의 피는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은 자신의 일을 완성하고 의자에 앉을 수 없었다. 그러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의 일을 마치고 앉으셨다.³ 여기에서 앉으셨다는 말은 할 일이 없이 가만히 계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구원의 일을 다 마치고 왕으로 ‘즉위’하셨다는 뜻이며, 보좌에 앉으셔서 안정된 가운데 통치하신다는 뜻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0문에서는 오른편에 앉아 계심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설명한다. 첫째, 자신을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늘에 오르셨다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그분이 교회의 머리심이 공적으로 선언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땅에 내려 오신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듯이, 그분이 하늘에 오르신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의 몸 된 교회도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게 되었다(엡 2:6).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그의 몸 된 교회를 통치하신다.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교회에 알리시고, 또한 의로우신 대언자로서 그 백성의 죄를 가려 주신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인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세상의 집권자들은 군림하

3. J. van Bruggen, 69



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며,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 나가신다(엡 5:25-27).

둘째, 성부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성부께로부터 받으셨는데, 이것은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받으신 것이 아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이전에는 자신의 권세를 공적으로 선언하지 않으셨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마 28:18)라고 선언하셨다. 십자가와 부활 후에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셨고, 그러한 분이로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의 일을 마치신 후에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셨다는 사실은, 그분의 권세가 복음 전파를 위한 것임을 암시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권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교회를 원수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중보자가 만물의 으뜸이 되셨고 교회를 위하여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은 그분의 백성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사명을 각성하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빛을 볼 수 없는 세상에서 교회가 빛으로 존재해야 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 또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는 중

보자의 뜻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엡 1:10; 4:10).

2.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는 유익 (51문)

51문: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첫째, 그리스도는 성신으로

그의 지체(肢體)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 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우리의 요리문답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통치하시는 그 영광이 주는 유익에 대하여 묻고 두 가지로 답한다.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단순한 사실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 혹은 ‘위로’의 관점에서 살피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는 첫째 유익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부에게서 성신을 받아 교회에 보내신 일이다(행 2:33). 오순절에 성신을 보내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였다. 성신의 능력으로 전하는 사도들의 전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사죄를 얻어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행 2:38). 성신을 ‘선물’로 주시므로써, 결국 그분을 통하여 회개와 사죄, 영생 등 많은 신령한 ‘선물들’을

교회에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행 5:31). 회개와 사죄 같은 선물들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지만 모두 하늘의 선물들이다. 영원한 생명도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생명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받는 선물이다.

둘째,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러한 크신 능력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길 수 없다(마 16:18). 이 말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신자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아무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사람이 없다(요 10:28). 사람은 몸에만 해를 주지만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마 10:28).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방식도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교회를 주님의 방식대로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신자가 어려움을 전혀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보존하신다. 이러한 것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능력이다.

3. 사자와 어린양

C.S. 루이스의 『사자와 마녀와 옷장』에서는 중보자의 이미지를 ‘아슬란’을 통하여 ‘양’과 ‘사자’로 표현하였다. 하얀 마녀의 마법에 걸린 에드먼드를 구원해 내려고 마녀에게 굴복하여 반항을 하지 않고 양처럼 털이 깎이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모습을 루이스는 아래와 같이 묘사하였다.

‘잠깐! 먼저 저 놈의 털을 깎아내, 털을 밀어 버려!’
잔인한 야수 하나가 커다란 가위를 들고 앞으로 나와 아슬란의 머리 곁에 웅크리고 앉자, 마녀의 추종자들로부터 비열한 웃음소리가 까르르 터져 나왔다.
씩둑! 쯑둑! 쯑둑! 가위질 하는 소리가 들리며 곱슬곱슬한 황금빛 털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잔인한 야수가 뒤로 물러서자,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두 아이는 그제야 갈기가 없어져 전과는 아주 판판으로 왜소해 보이는 아슬란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적들 또한 달라진 아슬란의 모습을 보았다. 한 놈이 소리쳤다.

그 소설은 결국 돌 제단에 묶였던 아슬란은 다시 부활하고 에드먼드는 죄를 회개한 후에 정의의 왕이 되고 아슬란은 루시와 수잔과 함께 뒹굴면서 즐기는 이야기로 끝난다.

루이스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렇게 사자와 어린양으로 묘사하였는데, 그의 영감의 출처는 요한계시록 4장이다. 인





Fr. Raphael (1967년)

봉한 책을 열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울고 있을 때에, 장로 중의 하나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계 5:5) 하고 말하였다. 사도 요한이 유대 지파의 사자를 보려고 고개를 돌렸을 때에 본 것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어린양’이었다(계 5:6). 그 어린양이 일곱 인을 떼시면서 그 책에 기록된 것을 하나씩 성취해 가시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고, 계시록의 마지막은 어린양의 혼인 잔치로 마친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을 볼 수 있다. 그분은 유대 지파의 사자이지만, 여전히 죽임 당하신 어린양으로서 그분의 통치권을 시행하신다.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동시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계 3:21) 하고 약속하시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완성된 통치권에 참여할 것을 약속해 주셨다. 이러한 약속과 함께 우리도 죽임 당하신 여호와와 함께 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시기이지만, 동시에 최후의 승리 전까지는 고통의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으뜸’이시라는 사실을 바르게 붙잡고 나가야 한다. 눈에 보이는 혼란한 모습이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어린양이 역사의 중심이고, 그분이 일곱 인을 떼시면서 역사를 어린양의 혼인 잔치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운행하고 계심을 보고서 거기에서 큰 위로를 얻어야 할 것이다(계 5:5-6:1).



글 | 김현수

총신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기독교학문연구회 간사와 총무를 역임하였다. 이후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대전성교회에서 목회하였다(1997-2010). 2010년 이후에는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교의학과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권, 『시편과 그리스도의 고난』, 『시편과 그리스도의 영광』 등이 있고, 역서로는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등이 있다.